

사고력 개발을 위한 열린 독서지도 방법

홍정희*

목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머리말 2. 열린 독서지도 방법 <ol style="list-style-type: none"> 2.1. 읽기 과정 2.2. 생각하기 과정 2.3. 표현(정리)하기 과정 3. 독서지도안 사례 4. 맷음말
-----------	----------------------------------------------------------------------------------------------------------------------------------------------------------------------------------------------------------------------------------------------

1. 머리말

오늘날 정보화 시대를 맞아 교육도 많이 변했다. 모든 것이 복잡, 다변하고 급격하게 돌아가는 정보화 시대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세계 각국에서는 교육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에 발맞춰 미래의 국가 비전을 교육개혁을 통해 찾으려는 의도 하에 다양한 교육적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교육 개혁의 방안 중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사고력 향상에 중점을 둔 교과과정의 대폭적 변경과 대학 입시에 수학능력시험 제도를 도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1993년 도입된 대학 수학능력시험제도는 과거 암기 위주의 주입식 교육을 개선해야 한다는 사회적, 교육적 합의가 종전의 어느 제도보다 강하게 반영된 새로운 형태의 시험으로, 학생들의 사고력 증진에 초점을 맞춘 시험제도이다. 교육 개혁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 제도는 주입식 공부에 훈련이 되어 있던 학생들의 공부 방법에 많은 변화를 주게 되었고, 변화를 수용하기 위해 교육현장에서는 '학습 방법 바꾸기' 비상이 걸렸다. 그 결과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7차 교육과정을 입안해 교육 방법을 대폭 변경시켰고, 학교에서는 자료 수집과 탐구학습, 토론 및 실습을 통한 실험 학습, 서술형 시험 문제의 강화, 수행 평가제도 도입 등 새로운 교육 방법을 적용해 암기보다는 사고력 증진을 위한 열린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사고력과 창의력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는 변화된 교육 내용은 21세기 정보화시대를 살아나가는데 필요한 전인적 인간 양성을 목표로 한다. 교육계에서는 변화된 교육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근원적인 해법이 독서에 있다고 판단하게 되었고, 자연히 독서는 교육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유하게 되었다.

독서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교육 현장에서는 독서교육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시

* 공주대 · 충남대 문현정보학과 강사(slpjh1205@hanmail.net)

점에서 읽고 쓰기 위주였던 과거의 독서지도에 대한 재평가와 함께 효과적인 독서교육방법, 즉 어떻게 효과적으로 읽히느냐 하는 지도 방법상의 문제가 숙제로 남게 되었다.

과거의 독서지도 방법으로 가장 기본적이고 널리 사용되어 오던 것이 독후감 쓰기이다. 독후감 쓰기는 작품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는 동시에 자신을 되돌아보는 반성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장력을 향상시키는 등 많은 순기능을 갖고 있고 그 활용도 또한 높다.¹⁾ 그래서 독후감은 그동안 교육 현장에서 독서지도의 중요 영역으로 인식되고 권장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독후감 쓰기는 순기능과 함께 역기능 또한 적지 않다. 대부분의 어린이들은 읽기 그 자체에는 흥미를 갖지만 쓰기와 같은 숙제 형식의 교육이 진행되면서 책읽기에 부담을 갖는 동시에 독서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리기도 한다. 이러한 사실은 쓰기 위주였던 과거의 독서지도 방법이 어린이들에게 긍정적 효과를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이와 같은 현실을 직시할 때 어린이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동시에 사고력 개발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효과적인 독서지도 방안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들의 흥미 유발과 함께 사고력 향상에도 효과적인 결과를 제공하는 열린 독서지도 방법을 제안해 보았다. 필자가 제안하고자 하는 독서지도 방법은 과거의 읽고, 쓰기 위주였던 독서지도의 문제점을 보완한 '읽고, 생각하고, 표현하는' 3단계 독서지도 안이다. 읽기 과정에서는 어린이들이 자발적으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생각하기 과정에서 생각을 유도하는 다양한 발문과 토론을 통해 사고력을 개발하고, 마지막 표현하기 과정에서는 앞의 두 단계에서 경험한 내용을 정리, 완성하여 어린이들의 사고를 지식화, 종합화하는데 목표를 둔다.

2. 열린 독서지도 방법

2.1 읽기 과정

읽기 과정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자발적 독서 흥미의 유발이다. 교육에서 '자발적인 것'처럼 좋은 약은 없다. 독서지도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자발적이란 것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쉽게 발생되는 것이 아니다. 어린이들이 자발적으로 독서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흥미와 관심을 유발시켜야 한다. 흥미와 관심이 없이는 호기심을 갖고 계속적으로 탐구해 나가기 어렵기 때문이다. 일단 책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높아진다면 어린이들의 독서지도는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그렇다면 어린이들이 어떻게 책에 대해 관심과 흥미를 갖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관건으로 떠오른다. 이제 어린이들로 하여금 책에 대한 흥미를 유발시키기 위한 방법을 생각해 보기로 한다.

2.1.1 독서환경을 조성하자.

요즘 많은 어린이들이 만화, 전자오락, 인터넷 게임 등 현란하고 매혹적인 시청각 매체의 유혹에 빠져 책을 기피하고 있다. 어린이들이 TV나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책을 읽는 시간의 몇 배가 된다는

1) 한중경, 『초독서공부법』(서울 : 프레스 벌, 1996), p.72

것은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고 말았다. 이러한 상황에 있는 어린이들이 자발적으로 독서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 독서 분위기와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부모는 어린이들의 독서 시간에 TV를 끄고 조용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하고, 도서관에 데리고 가서 책을 빌려 주거나 서점에 가서 책을 사 주는 등 주변에서 책을 많이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또 부모가 가정에서 책 읽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도 어린이들의 독서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어른의 행동을 무의식중에 모방하는 습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읽을 수 있는 책과 시설을 충분히 구비해 놓는 것이 독서 환경 조성의 1차적 과제가 된다고 할 수 있겠다.

2.1.2 어린이의 관심거리가 뭔지 알아보자.²⁾

책에 대한 좋은 인상, 즉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어린이들이 무엇에 흥미를 느끼는지 그 관심거리를 찾는 것이 우선이다. 관심과 호기심은 성장 후 적성과 연관되고 적성은 직업과 연관된다. 그러므로 어린이의 관심거리를 찾아내어 개발해 주는 일은 장래 어린이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어린이의 관심거리를 찾아내려면 지속적이고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 어린이를 신뢰하고 대화를 자주 해야 한다. 오래 가지고 놀거나 자주 이야기하는 주제와 내용들이 있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여러 번의 관찰로 찾아낸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어린이들의 흥미와 관심거리이다. 관심거리를 찾았다면 그 주제에 맞는 책을 권해 보자.

2.1.3 쉬운 책부터 읽게 하자.³⁾

일반적으로 책을 좋아하는 어린이들도 오랜 시간 독서를 하다 보면 싫증을 느낀다. 싫어하는 어린이에게 아무리 책을 읽어보라고 해도 ‘쇠귀에 경 읽기’다. 그럴수록 짧고 단순한 책부터 읽게 해야 한다. 음식도 억지로 먹으면 살로 가지 않는다. 책과 친숙해지고 이해력이 향상되었을 때 좀 더 어렵고 긴 내용의 책으로 바꾸는 것이 좋다.

2.1.4 책을 다 읽으면 보상을 하자.⁴⁾

어른들은 어떤 일을 할 때 자기 나름대로의 동기나 이유가 있다. 그러나 어린이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 이외의 행동을 할 때 강한 동기가 없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동기를 유발시켜야 한다. 어린이들의 동기를 유발시키는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보상이다. 가정에서는 어린이가 책을 읽고 난 후 가벼운 선물이나 칭찬을 통해, 학교에서는 독서왕 시상, 독후감 대회, 독서 퀴즈 대회 등의 행사를 통해 어린이들의 보상심리를 채워 줄 수 있다.

2.1.5 스스로 찾는 법을 가르쳐 주자.

어린이들은 질문을 많이 한다. “비는 왜 와?”, “왜 엄마는 여자야?” 어린이들은 수많은 질문을 통해

2) 상계서, p.24:

3) 상계서, p.29.

4) 상계서, p.32

자신의 호기심을 해결하고 그들의 지적 능력을 높여가기도 한다. 그러나 부모는 만물박사가 아니다. 만물박사라 하더라도 어린이들이 스스로 책을 통해 자신의 궁금증을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탐구심을 기르거나 자신감, 성취감을 얻는데도 더욱 효과적이다. 백과사전을 읽는 것도 독서 행위의 일부이다. 학교에서의 숙제나 일상 생활 중에 발생하는 의문을 백과사전을 찾아 해결하는 습관이 생기면 다른 종류의 책 읽기에도 관심을 갖게 된다.

2.2 생각하기 과정

일단 어린이들이 흥미를 가지고 책을 읽으면 독서지도의 첫 단계가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어린이들이 책을 읽는다고 모두 효과적인 독서를 하는 것은 아니다. 어린이들이 책을 읽었다고 해도 과연 그 책의 몇%나 이해했는지는 의문이다. 책을 아주 많이 읽는 어린이일지라도 독서가 주는 혜택 즉, 어휘력, 사고력을 비롯한 학습 능력 등이 발달되지 못한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효과적인 독서 학습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오늘날 7차 교육과정의 교과 내용과 대학 입시출제 경향이 사고력 향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현실에서 독서지도에 있어 생각하기 과정은 특히 중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단계의 독서지도에서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이 있다. 어린이들의 사고를 향상시키기 위한 발문 제시와 토론이다. 이것은 모든 독서지도의 기본이라 할 수 있다.

2.2.1 발문

2.2.1.1. 발문의 정의

어린이들은 책을 읽고 난 후 어떤 문제에 대해 여러 측면에서 많이 생각할수록 사고력이 길러지고 풍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⁵⁾ 줄거리 흐름이 어떻게 전개되는가, 핵심내용이 무엇인가, 교훈은 무엇인가, 그것이 다음 상황에 어떠한 도움이 되는가, 책으로부터 얻은 지식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주인공은 어떤 사람인가, 주인공의 행동은 과연 옳았는가, 내가 주인공이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 등의 많은 질문을 해 보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 보아야 한다. 물론 어린이들 스스로 이런 질문을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에 독서지도 담당자가 어린이들의 사고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발문을 만들어야 한다.

발문이란 독서지도 수업을 진행할 때 독서할 내용에 대한 정신적 활동이나 사고 수준을 자극하기 위해 어린이들에게 던지는 질문을 말한다.⁶⁾ 질문과 발문의 차이점은, 질문은 정확한 해답이 있는 문제를 뜻하고 발문은 정확한 해답이 없이 여러 가지로 답을 도출해 볼 수 있는 문제를 의미한다. 독자의 생각을 이끌어 내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해답이 한가지로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에 따라 각자 다른 생각과 해답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므로 독서지도에 있어 어린이들에게 제시되는 문제들은 질문보다는 발문의 성격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5) 상계서, p.119.

6) 초경화, “독서지도의 개념과 실제”, 한우리독서지도자교육자료집(서울:사단법인 한우리독서운동문화본부, 2001), p.21.

2.2.1.2. 발문 만들기

발문을 만드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나 필자는 Bloom의 교육 이론을 참고로 하여 설명해 보고자 한다. Bloom은 인간의 뇌가 인지하는 영역을 지식, 이해, 적용, 분석, 종합, 평가의 6단계로 구분하였다. Bloom에 의해 체계화된 6단계의 인지적 사고는 교육 현장에서 기능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하나의 체계로서 독서지도시에 발문 만들기에 활용할 수 있다. 그가 말한 여섯 가지 영역을 발문과 연결시키면 다음과 같다.⁷⁾

1) 지식

이미 관찰했거나 학습한 정보를 그대로 기억해서 재생하고 반복하는 기능을 요구하는 사고 과정을 말한다. 주로 단편적인 사실이나 정보에 대한 지식을 요구하는 것으로 무엇? 언제? 어디? 어느 것? 누구? 등의 질문이 여기에 해당된다.

2) 이해

이미 배운 내용의 의미를 파악하는 능력을 요구하는 문제로 설명, 비교, 대조, 해석, 요약, 예언, 예시, 추론, 논평 등이 해당한다.

3) 적용

이미 학습한 지식이나 수집한 정보를 새롭고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하는 능력으로 응용, 해결, 변화, 분류, 구정, 검사, 선택, 극화 등이 해당한다.

4) 분석

대상 자료나 사태를 형성한 요소를 살펴 그 요소들은 무엇이며, 그것들이 서로 어떻게 관련되어 있고, 그것들이 결합하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주어진 자료의 구성 및 내용을 분석하는 능력으로 분석, 분류, 비교, 대비, 추론, 입증, 도표화, 지적, 결정, 관련짓기, 구별, 인정 등과 관련된 발문이다.

5) 종합

대상이나 자료의 여러 요소나 부분을 모아 새로운 체계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으로 창의적 사고를 필요로 한다. 창조, 계획, 말하기, 글쓰기, 조직, 생산, 제안, 개선, 결론 도출 등의 발문이 해당된다.

6) 평가

작품, 사상, 자료 등에 대하여 가치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으로 논리적, 합리적 사고를 요구하며 한 층 적절하고 주의 깊은 판단을 하도록 유도한다. 평가, 판단, 검증, 비평, 비교, 방어, 요약, 지지, 결론, 정당화 등의 발문을 만들 수 있다.

이상에서 Bloom의 이론에 근거하여 '발문을 만드는 원칙'을 설명해 보았다. 설명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작품에 따른 발문을 예시해 보면 아래와 같다.

2.2.1.3. 발문의 예

7) 삼계서, p.21~22에서 1)~6)까지 발췌. 요약.

▶ 발문예시 1

- 대상 : 초등학생
- 독서 자료 : <홍부전>

- 홍부의 가족은 모두 몇 명인가요? (지식 영역의 발문)
- 홍부전의 줄거리를 요약해 보세요. / 홍부의 가정 형편을 설명해 보세요. / 제비는 왜 놀부에게는 나쁜 박씨를 가져다 주었을까요? (이해 영역)
- 홍부가 부자였다면 제비가 홍부에게 금은 보화가 가득 든 박씨를 갖다 주었을까요? / 주변에서 다친 동물이나 친구를 보았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적용 영역)
- 홍부와 놀부의 성격을 비교. 설명해 보세요. / 홍부와 놀부의 가족관계를 도표로 그려보세요. (분석 영역)
- 홍부전의 뒷 이야기를 꾸며 보세요. / 지난한 홍부가 놀부의 성격을 가졌고, 부자인 놀부가 홍부처럼 착한 성격을 가렸다면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었을지 상상하여 말해 보세요 (또는 써 보세요). (종합 영역)
- 홍부가 찢어지게 가난하면서도 가장으로서 열심히 일할 생각을 하지 않고 형에게 구걸만하는 행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 현대적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 홍부와 놀부 중 어느 쪽이 더 바람직한 가장의 모습인지 판단해 보세요. (평가 영역)
- 홍부전의 내용을 4컷의 그림(또는 만화)으로 그려보세요. (표현하기-부가적 활동)

▶ 발문예시2

- 대상 : 중학생 이상
- 독서 자료 : <벙어리 삼룡이>

- 벙어리 삼룡이의 시대적 배경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 벙어리 삼룡이의 신분은 무엇인가요? 등 (지식)
- 작품의 내용을 소설의 구성 단계인 기, 승, 전, 결로 나누서 요약해 보세요. / 삼룡, 새아씨, 새서방 3자의 관계에서 처음 갈등이 발생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등 (이해)
- 삼룡, 새아씨, 새서방의 갈등 구조를 해결할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삼룡이었다면 주인 집에서 쫓겨난 후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 보세요. 등 (적용)
- 등장 인물의 성격을 분석해 보세요. / 작품에서 삼룡과 새서방은 서로 대조적 인물로 갈등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두 인물의 대비를 통해 작가가 그리고자 한 두 가지 인간형을 각각 40자 내외로 설명해 보세요. / 작품에서 삼룡의 성격이 어떻게 변해 가는지 상황을 제시하며 이야기 해 보세요. 등 (분석)
- 내가 작가라면 결말을 어떻게 맺을지 생각해 보세요. / 인간 사회에 존재하는 신분상의 차별 문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써 보세요. (종합)
- 삼룡이 신분상의 차이와 신체적 불구를 초월하여 새아씨에게 연정을 느낀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 새서방이 삼룡을 학대할 때 주인 영감이 방관한 일이 옳은 행위였는지 평가해 보세요. 등 (평가)

지금까지 제시한 발문은 독서지도에 있어 학생들의 사고력을 개발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들이다. 제시한 문제들 외에도 유사한 형식으로 발문을 더 추가해도 좋고, 반대로 모두 다 선택 할 필요도 없다. 대상 어린이의 연령, 이해력 등에 따라 문제를 증감하기도 하고, 문제의 수준도 조절할 수 있다. 또한 문제를 만들면서 ‘어떤 문제를 먼저 물어 볼 것인가?’와 같은 문제 배열의 순서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다. 문제의 배열 순서에 있어서는 전술한 여섯 가지 영역을 차례로 나열할 필요는 없다. 문제 배열은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책의 분석을 기초로 시작해서 책 내용과 관련된 단편적인 지식 (지식 영역)을 먼저 물어 보고, 다음으로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는가를 파악하기 위한 이해, 분석, 적용과 같은 영역의 발문을 적당히 혼합해서 제시하는 것이 좋다. 이해를 위한 문제 다음으로는 어린이들로 하여금 교훈이나 문제 거리를 찾아보고, 쓰기 등의 정리를 통해 창의적 영역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사고를 종합화하는데 도움이 된다.

독서지도에 있어 발문과 함께 토론 역시 어린이들의 사고력 증진에 큰 효과를 줄 수 있다. 독서지도에 활용하기 위한 토론의 의의와 방법, 토론의 준비를 위한 논제 찾기 등에 대해 설명해 보고자 한다.

2.2.2 토론하기

2.2.2.1 토론의 의의

토론이란 책을 읽고 나서 그것에 대한 생각을 서로 말하여 보는 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지식을 더욱 확고히 하고 논리적 사고력과 분석력을 길러 줄 수 있는 종합적인 지식 활용과정이라 할 수 있다.⁸⁾ 토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장점은 다양한 원인과 가능성 등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 자신의 생각을 타인의 생각과 비교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 등 지적, 정신적, 종합적 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선진국의 교육과정이 토론식교육을 중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가정에서도 가족끼리, 또는 자녀들의 친구들을 모이게 해서 토론과정이나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다.

2.2.2.2 토론의 조건

토론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 토론에 참가할 인원이 3~5명 정도 있는 것이 좋다. 다양한 의견을 듣고 사고를 확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 토론자는 확실한 증거와 주장이 있어야 하는 동시에 대립점을 분명히 파악하여야 한다.⁹⁾ 주장이 모호하거나 주장에 대한 뒷받침 근거가 부족하면 상대를 설득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또 발언하는 사람이 대립점을 찾지 못하면 자신의 주장과 상대방의 주장을 구분하지 못하고 일관성 없는 주장을 하게 된다.
- 토론할 분위기를 형성하고 토론을 효율적으로 진행시키는 역할을 하는 토론의 주도자가 있어야 한다. 주도자가 없으면 토론의 방향이 초점을 잊고 우왕좌왕할 수도 있고 서로 사적인 감정에 치우친

8) 교육부, 『학교 독서 교육 진흥을 위한 독서 지도 교사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서울: 교육부, 1999), p.145

9) 상계서, p.146

격론에 휘말릴 우려가 발생한다.

- 논제는 주제와 연관된 것으로 명백하게 문제시되거나 쟁점화될 수 있는 것으로 선정해야 한다. 논제가 명백하게 쟁점화되지 않은 것일 경우 논란거리가 모호해져서 토론이 제대로 진행되기 어렵다.
- 토론의 규칙으로서 토론 참가자들은 발언 시간, 순서, 판정, 전체 시간 등을 지켜야 한다.¹⁰⁾ 자신의 발언을 정당화하는데 급급해서 발언 시간이나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토론의 질서가 무너지고 민주적인 토론을 진행할 수 없다.
- 토론 후에는 종합적 결론을 끌어내야 종합적 사고 능력을 키울 수 있다. 최종 결론을 도출하지 않은 상태로 흐지부지 토론이 끝나버리면 토론을 통해서 얻게 된 지식이나 생각이 소멸될 수 있고 생각을 종합화하는 능력을 키울 수 없다.

2.2.2.3 토론을 위한 주제(논제) 선정

독서 토론의 성패를 결정짓는 데 있어 ‘토론의 주제가 무엇인가’는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토론할 주제, 즉 논제를 만드는 일이 그리 쉬운 것만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책 주인공의 성격이나 행위에 대한 옳고 그름에 관한 문제, 책 내용에서 나타난 문제 거리에 대한 찬반 의견, 또 기타 첨예하게 대립될 만한 주제를 찾아 논제로 선정할 수 있다.

아래에 제시한 ‘독서자료에서 선정한 논제’의 예를 참조하면 논제 선정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 토론예시 1

- 토론대상 도서: <아낌없이 주는 나무>
- 내용 : 나무와 소년은 어릴 때부터 서로 어울려 친밀하게 지낸다. 소년은 나무에게 자신이 필요한 것만 빼앗아가고 나무는 그런 소년에게 불평 한마디 없이 희생적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다.
- 논제 : · 무조건적인 희생을 진정한 사랑이라 할 수 있는가?
· 무조건적인 희생은 과연 옳은 일인가?

▶ 토론예시 2

- 토론대상 도서: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 내용 : 감수성이 예민한 다섯 살 소년 제제는 장난이 너무 심해 가정과 마을에서 문제아처급을 받는다. 가족들로부터 심한 멸시와 매를 맞으며 살아가는 제제는 뒤틀에 있는 라임오렌지 나무와 대화하며 외로움을 달래고 위안을 얻는다. 어느 날 뽀르뚜가라는 아저씨를 친구로 삼게된다. 제제의 동심을 진정으로 이해해주고 밀어주는 유일한 사람 뽀르뚜가 앞에서 제제는 행복해 하며 모범적인 행동을 한다. 어느 날 사고로 뽀르뚜가를 잃게된 제제는 충격과 실의에 빠져 심한 병에 걸린다. 그동안 냉대하던 가족과 동네 사람들이 제제에게 찾아와 진심으로 제제의 병을 염려하고 쾌유를 빈다. 주위의 관심과 사랑을 확인한 제제는 다시 건강을 되찾고, 오렌지 나무

10) 상캐서, p.146

(동심?)를 잘라낸다.

- 논제 : · 교육에 있어 체벌은 꼭 필요한가?(제제의 가족들이 제제의 순수한 장난에 대해 심하게 때리는 상황을 생각하며)
 - 어린이와 어른이 진정한 우정을 나눌 수 있는가?(뽀르뜨가와 제제의 우정에 대해 생각해 보기)

▶ 토론예시 3

- 토론대상 도서 : <벙어리 삼룡이>
- 내용 : 생략
- 논제 : · 인간 사회에 신분상의 차별이 존재하는가?
 - 약자는 무시의 대상인가?

전술한 구체적 독서자료와 관련된 논제 외에도 주제별 도서나 신문 기사와 관련된 논제를 몇가지만 사례로 제시해 보았다.

▶ 환경관련도서

- 예 : <아이들의 섬> <바다의 노래> <최열 아저씨의 환경이야기> <보거를 찾아 떠난 7일간의 특별한 여행> 등.
- 논제 : · 자연은 인간의 소유물인가?(또는 인간은 자연을 파괴할 권리를 갖고 있는가?)
 - 과학기술의 발전은 역사의 발전과 비례하는가?

▶ 학교 폭력 등의 폭력관련 도서나 기사

- 예 : <꼬마 독재자>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등
- 논제 : · 인간의 본성은 악한가?
 - 폭력은 강자의 유일한 무기인가?

▶ 복제인간, 게놈프로젝트 등의 유전공학 관련 도서

- 예 : 영화-<가타카> 책-<어떻게 양을 복제할까?> 등
- 논제 : · 과학(또는 의학)기술의 발달은 인류에게 유익함만 주는가?
 - 유전혁명은 인류의 장밋빛 축복인가?

2.3 표현(정리)하기 과정

독서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 위해 표현 및 정리하는 일 역시 매우 중요하다. 읽고 생각하고 토론한 것들을 기초로 하여 글이나 기타 방법으로 기록하거나 표현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자신이 책을 읽고

느낀 점이나 알게된 지식을 오래 보존하고 지적인 능력을 종합적으로 완성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독서지도의 표현하기 과정에서 그동안 글쓰기, 특히 독후감 쓰기가 가장 많이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독후감 쓰기와 같은 글쓰기 교육은 많은 어린이들에게 부담감을 주고 있고 심지어 책 읽기를 기피하는 문제를 발생하기까지 한다. 오늘날 열린 교육이 강조되고 있는 것과 때를 같이하여 글쓰기 교육의 문제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대두되고 있다. 독서지도의 표현하기 방법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1) 독후감 쓰기

좋은 독후감은 형식에 너무 치우치지 않으면서 느낌이나 생각, 의도가 논리적으로 잘 표현된 글이 좋은 글이다. 또 글쓰기를 할 때 너무 완벽한 글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을 적은 양이라도 써 보게 하여 쓰는 부담을 없애야 한다.

독후감을 비롯한 다양한 장르의 글쓰기를 잘 하기 위한 조건으로 충분한 토의 및 토론을 들 수 있다. 책을 읽고, 관련된 다양한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보고 충분한 토론과정을 거친 후 그것을 바탕으로 쓰게 한다면 쓰는 일이 훨씬 쉬워지고 어린이들도 부담을 덜 느낀다.

2) 작품 주인공에게 편지 쓰기

'주인공에게 편지쓰기'는 '독후감 쓰기'에 부담을 갖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정리 방법이다. 편지는 독후감과 달리 작품 속에서 주인공에게 궁금했던 사항이나 안타까웠던 일들, 격려해주고 싶은 내용, 하고 싶은 말 등을 대화하듯이 편안하게 쓸 수 있기 때문이다.

3) 작가에게 편지쓰기

책을 쓰게 된 동기, 주인공의 상황을 그렇게 설정한 이유, 특별히 감동받은 부분, 좋았던 일, 아쉬웠던 일, 내가 작가였다면 이야기를 어떻게 엮었을 것인가, 작가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 등을 편지 형식이나 자연스런 문체로 쓰기 해 본다. 이 방법은 어린이들의 작품에 대한 이해력을 높일 수 있고, 작가가 되는 것이 꿈인 어린이들에게 스토리 구성에 대한 감각도 개발시켜 줄 수 있다.

4) 뒷이야기 꾸며보기

작품의 내용에 덧붙여 뒷 이야기를 자유롭게 꾸며보게 한다. 이것은 어린이들의 상상력과 문장력, 스토리 구성 능력 등을 개발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에게 작품에 대한 흥미를 제공해 주기도 한다.

5) 주인공과 인터뷰하기

주인공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그밖에 묻고 싶은 사항들을 자신이 기자가 되어 주인공과 인터뷰한다고 가정하고 인터뷰 기사를 작성하게 해 본다.

6) 독후감상화 그리기

- 책을 읽고 느낀 점을 그림으로 표현하게 한다. 읽은 내용 중에서 가장 인상깊었던 장면이나 내용을 그리게 한다.
- 등장 인물 중 특정 인물의 사건 당시 표정이나 마음의 상태를 색으로 표현하게 한다.

- 내용에 따라 한 칸으로 그리기(가장 인상 깊은 부분을 그리기), 두 칸으로 그리기 (동화의 원인과 결과를 함께 이야기한 뒤 그리기), 네 칸으로 그리기(동화의 내용을 기승전결에 따라 넷으로 나누어 그리기) 등을 한다.¹¹⁾
- 얼굴 표정을 그리게 한다 : 주인공의 얼굴을 그려보면 그의 내면의 변화와 동화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다.¹²⁾

7) 책소개

책의 서지사항, 줄거리, 느낀 점, 소개 이유, 소개하고 싶은 대상 등을 기록한다.

8) 독서기록장

책의 서지사항, 줄거리, 인상깊었던 내용, 느낀 점, 나의 각오 등을 기록한다.

9) 책달력

한 달 동안 읽은 책을 그 달의 달력에 날짜에 맞춰 기록하고 읽은 책 중 가장 인상깊었거나 감동적이었던 책을 사진(또는 그림) 난에 그려 넣고 개요를 기록한다. 자신의 생각과 느낌, 감명 깊은 구절, 다음 달의 독서 계획 등을 기록한다.

10) 마인드 맵

책을 읽고 생각나는 것을 생각 그물을 이용해 마음껏 펼치도록 한다. 마인드 맵은 내용을 형상화하고, 요약, 정리하여 이해력을 높이는데 있어 매우 좋은 방법이다. 따라서 마인드 맵은 어린이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책 내용을 이해, 정리하게 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으며 학과 공부의 이해 및 암기에도 효과적으로 활용되어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지금까지 소개한 독후 정리 방법들은 독서 지도 현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몇 가지 방법만 제시한 것이다. 이들 여러 가지 방법들을 어린이들의 연령과 수준에 맞춰 적절하게 독서 후 활동으로 진행할 경우 어린이들의 사고와 지식을 종합화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는 독후감 쓰기보다는 그리기, 만들기 위주로 진행하고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생의 경우는 쓰기와 함께 위에 제시한 다양한 방법들을 병행해서 지도하면 별 무리없이 표현하기 과정을 마칠 수 있다.

3. 독서지도안 사례

아래에 예시한 독서 지도안은 초등학교 5, 6학년 정도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작성된 것이다. 필자가 제시한 3단계 독서지도 방법을 기초로 하여 Bloom이 체계화한 6단계의 사고과정을 활용하여 발문을 작성했다.

11) 허덕희, 『어린이 독서교육』(서울 : 인간과 자연사, 1999), p.22

12) 상계서, p.23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바스콘셀로스)

줄거리를 말해보세요.

이 글의 주요 등장인물들의 성격과 서로의 관계를 알아봅시다.

이 글에서 지은이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중심 생각 알기)

- 생각하기 |

1. 제제는 어떤 아이인가?(나쁜 아이인가 좋은 아이인가에 대한 자신의 생각)

2. 제제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과 가장 슬펐을 때가 언제였나요?

3. 제제가 뽀르뚜가를 만난 뒤에 어떻게 변했나요? 그 이유는 뭘까요?

4. 뽀르뚜가의 죽음은 제제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5. 마지막 부분에서 제제가 '밍기뉴 나무를 잘라냈다'고 한 말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6. 제제와 뽀르뚜가처럼 아이와 어른이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7. 어른들이 아이들의 동심을 해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자신의 생각을 말해 보세요.

- 토론하기 |

논제 : 어린이들의 교육에 있어 체벌이 꼭 필요한가?

- 표현 및 정리하기

다음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써 보세요

① 토론한 내용을 정리해서 써 보기

② 아빠, 엄마, 그 밖의 어른들께 하고 싶은 말 터놓고 편지로 쓰기

③ 제제를 친구로 생각하고 편지 쓰기

- 날말공부

토직자 혼혈아 송장 동심

- 퀴즈

① 브라질의 크리스마스는 어느 계절인가요?

② “뜨스땅’이 뭘까요?

4. 맷음말

오늘날 정보화 시대를 맞아 모든 것이 급변하면서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것들이 생산되고 있다. 새롭게, 그리고 불확실하게 다가온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시대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찾아 읽고, 배우고, 깨달아가며 자기 실현을 추구해야 한다. 특히 자신의 미래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청소년들은 이러한 사회에 대처하고 적응해 나가야 하는 더욱 절박한 과제를 안고 있다. 교육 과정의 혁신적 변화와 함께 대폭 변경된 대학 입시 제도와 초, 중, 고등학생의 수업 방식의 변화 등은 학생들로 하여금 이러한 복잡한 시대적 상황을 유연하게 대처해 나가게 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대응책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 개혁의 물결 속에서 바뀐 교육과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독서력이 우선 된다는 사실은 모두가 공감하는 바이다. 이와 때를 같이 하여 교육계에서는 독서교육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바람직한 독서지도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독후감 쓰기 위주였던 주입식 독서지도는 어린이들에게 많은 부작용을 초래했던 것이다. 그것은 '독서에 대한 흥미 상실과 거부 반응'이라는 역기능이 '작품 내용에 대한 이해력과 문장력의 향상'이라는 순기능을 압도할 정도로 많은 문제를 발생하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의 사고력 개발 측면에 있어서도 생각하기 과정이 빠진 기존의 독서지도 방법은 결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새로운 시대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 또 변화된 새 교육과정을 잘 이행하기 위해서는 좀 더 참신하면서도 효율적인 독서지도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효과적인 독서지도를 위해서 우선 읽기 과정으로서 독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생각하기 과정을 거치면서 토론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학생들의 사고력 향상을 위해 매우 유익하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읽은 책의 내용을 지식화, 종합화하기 위해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 및 표현해 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단계를 완전히 이행했을 때 학생들은 책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나이가 그것을 더욱 효과적으로 종합화하여 그것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어린이들에게 독서지도를 시행한다면 독서지도가 끝난 후에도 어린이들 스스로 흥미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독서활동을 전개함과 동시에 스스로 자신의 사고력과 창의력을 개발시켜나가는 힘을 얻게 될 것이다.

*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